

21세기와 역경

-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 2.역경원은 불교학의 견인차
- 3.디지털시대와 역경
-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담은 경전은 불교연구와 수행생활의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 불교문화의 지적 기반으로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오랜 노력 끝에 완간된 **〈한글대장경〉**이 불교연구활동의 기본 텍스트로서 널리 활용되고, 불자들의 수행생활을 윤곽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박제화된 고서에 불과할 뿐이다.

〈한글대장경〉은 그동안 불교학자와 일반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학자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번역이 상당부분 있고, 일반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옛 문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상의 불완전성은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장벽을 일으킬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디지털시대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역경원은 현실 적용력을 갖추어야 할데, 올바른 번역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다면 기계적인 디지털화 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간과 더불어 진행될 **〈한글대장**

번역 치중 탈피 학문적 접근 필요

인력-재정난 해결 급선무

경)의 개정작업은 단순한 원문 번역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전본래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유려한 우리말 형상화를 빨리 이루어야 한다. 특히 한글세대에 부처님이 누구인지,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서는, 다음세대에 관심밖의 대상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개정작업에서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오역 문제 해결이다. 한 역경관계자는 번역된 **〈한글대장경〉** 중 상당부분이 오역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는 역경조직 부족과 역경내규의 부재,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업적중심주의 등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을 펴낸 조현준교수(경북대)는 "〈한글대장경〉이 쉽고 빠르게 번역되지 않고서는 불교의 대중화는 물론이요,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세계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또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글대장경〉**의 많은 부분에서 번역상의 오류가 발견된다. 이는 한역장정의 집성인 **〈고려대장경〉** 자체의 오자로 인한 오역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번역자 스스로가 원전을 완벽히 소화하지 못한 우리말로 옮기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조당집〉(1995)의 경우는 처음 번역당시 **〈고려대장경〉**의 **〈조당집 권제1〉**부분의 전사된 글자를 잘못 읽어 오역한 경우다. 이를 법장스님(백양사 강사)은 지난해 역경원에 서 펴낸 **〈조당집 주해1〉**에서 밝히고 있다. "〈조당집〉 해동신개인관기 사문석광판기 편에 '이제 중국에서 편집한 이가 법을 아끼는 흔적을 영원히 떨어버리고 이 땅의 미약한 무리들이 선법(禪法)을 펴려는 미력을 다하여 할 것을 사문석자(沙門釋者)들은 소망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금이사문석광준(今以沙門釋者)의 석광준(釋光準)부분을 **〈고려대장경〉** 보유판의 글씨가 흐릿한 관계로 판독을 잘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이제 사문(沙門) 석광준(釋光準)의 바라는 바는 중국에서 편집한 이의 법을 아꼈던 흔적을 영원히 떨어버리고 이 땅의 미약한 무리들에게 선법을 호종하고 찬미하여 깊이 다 환하게 깨달도록 하는 데 있다'로 번역하고 있다.

한문을 한글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역불전 자체가 번역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승석교수(동국대)는 "한역경전 자체를 식가모니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역불전은 불

론이요, 범본원전을 함께 비교하면서 본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경원 최철환부장은 "초기번역의 경우 서지학적 측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한글대장경〉**의 여러부분에서 오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오역을 바로잡기 위해 역경원에서는 대장경 용어집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기 보다는 **〈한글대장경〉**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활성화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정작업이 이뤄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한글대장경〉**은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조당집〉** **〈능엄경〉** **〈원각경〉** 등 **〈한글대장경〉** 번역본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에서 최초로 번역된 것들이고, 이에 대한 주해서도 발간해 학문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의 성과들을 학문적인 발전으로 끌어올리지 못해 단순 번역의 수준에만 안주해 왔기에 역경원은 번역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재정과 인력난 등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역경원 스스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능동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경원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의 역할 밖에는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법계불교도협회

휴아스님 설립... 불교사회운동 활발

미국에 본부 세계각국에 지회 운영

법계불교도협회(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는 남녀노소를 망라한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종교 공동체이다. 협회의 본부는 미국에 있으며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지회를 두고 있다. 불교사상을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불교정신을 수련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교사회운동 NGO이다.

중국 위안중의 19대째 법통을 이어 받은 과거 중국 만주 지역 출신인 휴아(Hua) 스님(1908~1996년)이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다수의 불교사찰과 참선수행 센터를 건립하였다. 이곳에서 휴아 스님은 지질 줄 모르는 열정으로 거의 30년 동안 불교경전과 사상에 대한 강연을 포교와 수행의 일환으로 전개하였다. 스님의 불교 사상에 대한 해설서들은 이미 100여권이 넘게 출판되었으며 또한 6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불교사상을 서구세계에 포교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불교사상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서원으로 삼고 있다. 불교의 대각사상과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어서 발표된 것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지난해 경허대선사 열반 87주년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경허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한 제1회 한국선학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엮은 것이다.

한국종교 제24집 펴내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한국종교 제 24집〉**을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불교로 이어진 중·한 두 나라의 우의', '전통사상과 한국종교', '민족종교와 한국사회의 발전' 등 12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사 5편의 논문과 이에 따른 5편

이러한 협회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인 3년 과정의 승가교육과 2년 과정의 평신도 교육은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3년 과정의 승가교육은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전통적인 승려 계통 절차에 따라 비구 250명과 비구니 348명을 지켰다고 맹세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한다.

협회 소속 구성원들의 수행 풍토는 주로 대승불교 계열의 다섯 가지 불교 종파들의 수행 가풍을 따르고 있다. 불교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율종, 참선수행에 매진하는 선종, 불교교리를 연구하는 교종, 주문과 기도에 주력하는 밀교, 열불을 열심히 하는 정토종이 바로 그것이다.

협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는 불교경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협회 산하 기구인 불교경전 번역 협회(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에서 도맡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100여권의 불교경전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 발행하였다. 협회는 또한 전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http://www.drba.org

"21세기 과학 이론적 틀 불교사상서 찾아야"

소광섭 교수 '21세기 물리학의 전망' 발표

물질과 우주의 궁극을 추구해 온 물리학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현대물리학이 직면한 한계를 불교사상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포럼이 열려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대와 대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5회 21세기 발전 모델 포럼에서 소광섭교수(서울대대학원 물리학과)는 '21세기 물리학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에는 물리의 심리가 통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교수는 이날 고전역학의 과학철학적 관점과 20세기 물리학의 위치를 진단한 후, 미래 물리학의 전망을 불교의 연기론(緣起論)과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소교수는 고전역학은 자연현상의 실재성과 법칙의 객관성에 바탕을 두고 정신과 물질, 관찰자(주관)와 관찰대상(객관)을 엄격히 분리했으나 이같은 관점은 20세기에 들어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해 밀바탕부터 무너지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부파불교시대의 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20세기 물리학의 자연관도 중관불교(中觀佛敎)나 유식불교(唯識佛敎) 혹은 불교적 유심론의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개념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루스타프 용(1875~1961)이 심리학과 물리학의 접점과 관련된 공시성(共時性)의 원리를 발표한 후 국내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물리와 심리의 통일을 다루었다는 점과 불교적 관점에서 물리학의 미래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법화사 복원은 탐라의 역사찾기"

'장보고 선단과 제주법화사' 학술대회

고려 왕실의 원찰이자 장보고가 해상 무역의 안정을 기원한 사찰이었던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제주도 기념물 13호)는 복원을 앞두고 실제 규명과 함께 복원된 법화사의 역할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화사와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제)는 2월 20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신해양시대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장보고 선단과 제주법화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중국 산둥반도 적산촌 법화사와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법화사 개창 목적과 사적, 복원의 의의 등이 집중 논의된 이번 학술대회는 김승제 동림부총장이 '국제자유도시와 법화사 복원의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데 이어, 김문경 숭실대 교수가 '장보고와 법화사'를, 이재룡 숭실대 교수가 '조선 전기 대명(對明) 관계와 제주 법화사 동아시아사상조망'을, 윤병철 동국대 교수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고대 해양교역에 관한 연구-고대 항로를 중심으로'를, 김덕수 군산대 교수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와 장보고의 법화사'를, 강창화 제주대 교수가 '법화사 발굴

학술단신

원효사상 현대적 조망

'원효사상과 21세기-원효로 돌아가지' 동북아 평화센터가 주관하는 원효사상 국제학술대회가 21일,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성배 교수(뉴욕주립대) '화쟁사상의 본질', 신오현교수(경북대) '현대철학의 한계와 원효사상', 카와이교수(일본 동경대) '원효사상과 세계 평화' 등이 발표된다. 학술대회에 이어 22일 경주에서 열릴 초청강연회에는 김진홍 목사, 박성배 교수, 신오현 교수 등이 참가한다. (02) 782-0087

무불선원 '덕승선학' 발간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에서 **〈덕승선학〉**을 발간했다. 김지연박사(국제일본문화센터 객원 교수)의 '경허선사 재고', 현각스님(통국대 교수)의 '경허의 선정사상', 최병현교수(서울대의) '근대 선종의 부흥과 경허의 수선결사' 등 5편의 논문과 이에 따른 5편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탐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화제의 책!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탐사

진행중 편저/해평스님 김수 옮김/값 6,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령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절로 의경감을 품게 하는 마이산 탐사! 이제 현대의 산이있는 전설을 찾아 떠나보려고 하자.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탐사

은행나무 전화023143-0651 팩스023143-0654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호남의 명산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요묘한 신비 이 태초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 도량 점진장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 기도

찾아오시는 길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전주 - 광주 - 마이산

신안 마이산 탐사 전화023143-0651 팩스023143-0654

자석식 분리형 연등배선

영구자석 스프링 철판 석구

▲조광기(연등 밝기조정)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신성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FAX: 02)993-8905

특징

1. 불자 기업으로서 권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공장 0341) 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